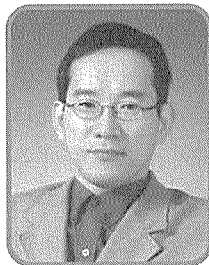


남쪽 바닷가의 아름다운 추억

(2004. 10. 3. 경남사천도서관)



고정욱*

내 고향 남쪽 바다로 시작하는 가곡 <가고파>가 있다. 남쪽 바다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은 굳이 고향이 바닷가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이다. 그만치 남쪽 바닷가로의 여행은 가슴 설레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10월 3일 오후 3시에 사천 도서관에서 있었던 작가와의 만남이 그러했다. 과거 필자가 장편소설 <원균>을 쓸 때 당시 전투의 배경이 된 남해안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한 도시인 사천, 취재를 위해 직접 가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 때의 기억이 새로웠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벽지 도서관에 작가가 가서 강연하고 독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지역 문화발전에 자극이 된다고 해서 응한 곳이 다름 아닌 사천이었다. 육로로는 멀지만 진주 가는 비행기가 내리는 사천 비행장이 가까워 시간상으로는 멀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찌감치 김포공항에서 10시 비행기를 타고 사천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의 적당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는 3시부터인데 미리 가게 된 것이다. 다행히 마중 나온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그런 나의 고민을 짐작했는지 바닷가 구경을 시켜주셨다. 다리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천 대교와 맑은 바닷물을 보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으려니 이곳에 집 하나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이러 저런 구경을 마친 뒤 사천 시내 식당에서 싱싱한 바다 요리까지 대접받고 도서관에 도착했다. 신청자를 받아 제한했다는데 마땅한 여흥거리가 없는 소도시인지라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막을 수는 없는 듯했다.

도서관은 오래 된 건물이어서인지 휠체어 탄 내가 다니기는 불편했지만 강의실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의 눈망울과 독서에 대한 애정은 그런 나의 불편을 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적게는 서너 권, 많게는 거의 다 내 책을 읽었다고 했다.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난다는 설렘이 묻어나는 것이 보였다. 통로에 아이들이 신문지 깔고 앉은 것을 보고 작가가 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천까지 나의 명성이 자자

* 문학박사, 소설가, 아동문학가, 세날도서관 관장, kingkkojang@hanmail.net, 「기방 들어 주는 아이」, 「안내건 탄실이」, 「아주특별한 우리형」 등

(?)한 듯해서 흐뭇했다. 강연 분위기도 진지하고, 열심히 듣는 태도가 역력했다. 강연 내내 나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내가 어려서 살아온 경험과 편견과 차별이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도 알려 주었다. 이러한 강연 프로그램이 자주 있어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서울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게다가 나는 이번 강연을 통해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다. 관장님이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도서관이 처한 입장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일단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을 짓는 것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현재 전국 각지의 공공 도서관의 수는 국립, 공공, 대학, 학교, 특수, 전문 등을 모두 포함해 1,120여 곳이나 된다는데(정확한 통계는 비전문가인 내가 알 길이 없다) 대학이나 학교를 빼더라도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 도서관과 특수 전문 도서관의 수는 600여 곳이다. 과거처럼 도서관 구경도 못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 강연 가서 실태를 보니 공공도서관은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서관이 수년 내에 전국 곳곳에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머지 않아 온 가족이 손잡고 산책하듯 걸어서 가까운 도서관을 갈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우리 도서관 문화 발전을 가로막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첫째가 사서들에 대한 오해이다. 도서관의 책 구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서에게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책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높은 눈으로 양서를 골라 도서관에 비치하느냐에 따라 그 도서관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도서관의 경우는 두어 명의 사서가 흑사당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아직 자원봉사의 개념이 널리 보급되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이용자들에게 사서들이 편하게 책이나 읽고 빈둥거린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사실 사서야말로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야 책을 고르는 안목이 생기고 미리 책을 읽어서 좋은 책을 골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과거 세종대왕은 사가독서를 시행했다. 젊고 유능한 관리들에게 일정 기간 집에서 책만 읽고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그 기간에도 국록을 줌으로써 젊은 관리가 더욱 높은 실력을 갖추게 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사서들에게도 여유롭게 책 읽을 시간을 쬐야 한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오해였다. 흔히 우리는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그러나 요즘 아동 도서 전문 도서관에서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입 예산이 일년에 1억 5천만원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기가 힘들다는 거다. 도서관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신간 추천도서 목록의 책을 다 합쳐봐야 일년에 750여권 정도다. 책 한 권당 만원을 잡고 도서관이니까 여러 사람의 대출을 감안해 10권씩 구입한다 해도 7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서들이 살 책이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필자를 포함한 이 땅의 작가들과 출판 관계자들이 더욱 열심히 양서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었다.

세 번째는 도서관 기능에 대한 오해였다.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동네의 도서관이 주는 효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책 한 권 선뜻 사주기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빌릴 수 있다는 건 큰 도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겪는 가장 큰 민원은 바로 독서실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책을 가지고 와



읽고 공부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도서관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처사다. 도서관은 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취하는 곳이지, 개인의 공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소에 개인의 학습 욕구를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가끔 도서관에 시찰 나온 높은 분들은 도서관과 독서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왜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안 보이느냐고 묻는단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서들은 힘이 빠진다. 그것이야말로 사서들을 독서실 총무 정도로나 보는 시각이고, 그런 시각 때문에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는 도서관에 낡은 책만 있다는 오해였다. 현장에 가서 보니 서가대에는 최신 신간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었다. 꾸준히 책을 구입할 뿐 아니라 새로운 책이 없으면 이용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다. 과거에 도서관에서 낡고 먼지 폴폴 나는 구간들만 접했던 나로서는 상전벽해의 느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새 책들도 많은 어린이들이 열람하고 대출하는 통에 견뎌내지 못한다니 책의 품질에 신경 써야 할 판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기후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찌우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독서에 특별한 시기가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이 가을, 그 동안 지니고 있던 오해와 선입견을 깨고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해 차분히 책 한 권 읽을 기회를 마련해 보자.

멀리 남쪽바다까지 다녀오고 내가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